

# 우언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sup>1)</sup>

김 영\*

1. 우언연구의 의의
2. 한국우언문학 연구의 현황
  - 1) 우언작품에 대한 소설사적 관심과 假傳에 대한 연구
  - 2) 우언 작품의 발굴과 번역
  - 3) 우언의 개념과 범주, 문학적 성격에 대한 이론적 탐구
  - 4) 우언에 대한 사상적 연구
  - 5) 비교문학적 연구
  - 6) 동아시아 우언연구자간의 학술교류
3. 우언문학연구의 향후 과제와 전망

## 1. 우언연구의 의의

최근 들어 寓言文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솝우화나 라퐁텐우화는 꾸준히 번역 소개되어 왔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꿈을 상실한 어른들을 위해서 『어린왕자』나 『갈매기의 꿈』, 『꽃들에게 희망을』같은 성인들을 위한 우화들도 활발하게 출판되어 왔다. 직설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드러내지 않고 동물이나 재미나는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예들려 전달하는 寓話나 寓言<sup>2)</sup>은 세계문학사에서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것이 지닌

\*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 1) 이 글은 21세기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연구과제 ‘21세기 한국학 연구의 방향’의 논문임.
- 2) 寓話는 동화의 일종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이솝우화를 번역하면서 사

계몽적 특성으로 해서 동서고금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다. 왜냐하면 우언문학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sup>3)</sup>

이와 같은 문학적 특징 때문에 우화 내지 우언문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고, 이솝우화를 비롯한 라퐁텐우화, 크릴로프우화같은 서양의 우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장대한 문학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온 우언문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발굴하고 그 개념과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莊子』이래 풍부한 한문우언의 방대한 문학 유산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당연히 우언작품의 정리 작업과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917년 沈德鴻이 중국 최초로 秦漢시대의 우언을 모아 『中國寓言』으로 정리하고 1930년에 胡懷琛이 『中國寓言研究』(상무인서관)를 간행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陳蒲濤가 중국우언문학을 통시적으로 정리한 『中國古代寓言史』(호남교육출판사, 1983년 초판, 1996년 증보판: 이 책의 초판본이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번역되었음. 오수형역,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0년에 중국의 고대우언작품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古代中國寓言大系』(전3권, 산서교육출판사, 1994) 등과 같은 수많은 우언집과 연구서가 간행되었다.<sup>4)</sup> 그리고 1984년에는 400여명의 우언연

---

용되기 시작한 개념이고, 寓言은 『莊子』에 등장한 이래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우언문학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적 근거가 있는 寓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문헌에도 『花王戒』, 『浮休子淡論』, 『亡羊錄』의 작품을 지칭할 때 모두 ‘寓言’으로 명명해왔다.

- 3) 陳蒲濤는 우언이 기원전 3000년 스피르우언이 발생한 이래 5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학양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닌 계몽적 역할과 각 나라의 특징적인 문화적 지혜를 기록하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하였다. 陳蒲濤, 「우언의 문화지위」, 『2004년 한국고전문학회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인하대, 2004.5. 1~9쪽 참조.
- 4) 陳蒲濤, 「中國寓言研究現況」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집문당, 2004, 229~250쪽 및 權錫煥, 「試論韓中寓言文學研究史」, 『중어중문학』 31집, 2002. 12.

구자와 현대우언작가들이 함께 ‘中國寓言文學硏究會’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상황에 비해 같은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우언학회의 구성은 물론 우언연구자도 영성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대적 요청과 몇몇 연구자의 의욕적인 연구로 인해 국내의 우언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한중일 세 나라간의 연구자 네트워크도 구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우언문학연구의 前史를 돌아보고 현재의 연구 상황을 점검한 뒤,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기필된다.

## 2. 한국우언문학 연구의 현황

### 1) 우언작품에 대한 소설사적 관심과 假傳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우언작품에 대한 학문적 언급은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에 보인다. 김태준은 林悌의 花史를 거론하면서 “화훼로써 국가군신의 제도를 만들고 혹은 고대의 지명 인명이 화훼에 관한 글자가 있으면 모다가지고 중국역대사략의 체제에 빙거하여 정치의 방법을 보였다”<sup>5)</sup>고 하여 花史가 가진 독특한 성격을 ‘화사체소설’로까지 명명하였으나, 이 작품의 우언적 성격을 간취하거나 그것을 독자적 문학양식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李家源의 『韓國漢文學史』에 이르면 寓言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薛聰의 花王戒에 대해 서술하면서 짧지만 깊은 우언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하고,<sup>6)</sup> 이조한문소설을 寓言 志怪 艷情 諷刺 狹邪 滑稽 등의 6가지 사조로 분류한다.<sup>7)</sup> 그러나 두 원로학자의 언급은 우

311~326쪽 참조.

5) 金台俊, 『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72~73쪽.

6)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초판 1961, 민중서관; 재판 보성문화사, 1987, 67쪽.

7) 李家源, 『李朝漢文小說選』, 민중서관, 1960, 7~11쪽 참조.

언작품의 문학적 가치에는 주목하였지만 우언을 문체나 사조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 뒤 중문학을 공부하면서 『莊子』의 우언적 성격을 주목한 안병설에 의해 중국의 선진우언문학과 수용문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논저가 나오기 시작한다.

안병설, 「우언의 문학적 수용에 대하여」, 『논문집』 12집, 국민대, 1977.  
안병설, 「선진우언의 특질」, 『어문학』 3집,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4.  
안병설, 「중국 우언전기 연구」, 국민대학교 출판부, 1988.

이와 같은 시기에 고소설사에 관심을 가진 고전문학연구자들은 고려시대 이후 지어진 假傳이 지닌 허구성에 주목하여 그것을 ‘擬人體小說’, ‘假傳體小說’로 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김광순의 저서를 들 수 있다.

김광순, 『천군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6.  
김광순,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한편 假傳의 허구성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을 소설에 긴박시키지 않고 한문산문 원래의 갈래의 하나로 파악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임춘의 「국순전」을 비롯한 고려시대의 가전 작품들에 대한 개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가전에 대한 자료정리와 연구는 김창룡과 조수학의 성과가 주목되고, 假傳을 비롯한 傳과 소설의 변별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작업으로는 박희병의 노력이 돋보인다.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상)(하), 태학사, 1997.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개문사, 1985.  
조수학, 『한국의 탁전과 가전』, 영남대출판부, 1987.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우언작품의 문학적 성취에 주목한 것이거나 소설사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직까지 寓言文學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우언이 지닌 양식적 특성이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 2) 우언 작품의 발굴과 번역

우언을 설화나 소설의 한 사조나 갈래로 이해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학양식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일 것이다. 중국에서 1983년에 간행된 陳蒲清의 『中國寓言文學史』가 한중수교 직후인 1994년에 중국산문 연구자인 오수형에 의해 번역 소개되면서 한국고전산문연구자들 사이에는 우리도 중국처럼 한국우언문학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겠다는 긴박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寓言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우선 연구대상인 寓言作品을 확보한 것이 급선무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기왕에 알려진 假傳작품 외에 독자적인 寓言작품을 발굴하는데 연구자들이 먼저 학문적 노력을 경주했다. 윤승준은 동물우언과 식물우언을 대거 발굴하였고, 양승민은 문집과 잡록에 소재된 우언작품목록을 체계화 하였다. 이종묵은 성현의 『부휴자담론』을, 김영은 이광정의 『망양록』을 각각 번역 소개하였고, 윤주필은 「매유쟁춘」류 우언을 발굴하고 소개하였다.

윤승준, 『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윤승준, 「한국의 화훼류 우언에 대한 일고찰」, 『제16회 동아시아고대학회 발표논문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양승민, 「우언의 서술방식과 소통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1996.

이종목 역,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

김 영, 『망양록연구』, 집문당, 2003.

윤주필, 「신자료 ‘매류쟁춘’류 우언의 원전비평 연구」, 『단국어문논집』  
창간호, 단국어문연구회, 1995.

그러나 중국의 학계가 『고대중국우언대계』3권(산서교육출판사, 1994)과 『중국역대우언분류대관』(상해 문희출판사, 2000) 등과 같은 우언작품집을 집대성하여 출간한 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우언작품의 발굴과 정리 작업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문집총간으로 간행되는 각 문집의 잡록이나 만록류에 산재해 있는 우언작품을 찾아내는 일과 야담, 설화, 시, 소설, 그리고 記 說 辨 錄 등과 같은 한문산문류에 들어 있는 우언작품을 발굴 소개하는 일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 3) 우언의 개념과 범주, 문학적 성격에 대한 이론적 탐구

『莊子』 寓言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언은 말 그대로 우의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장자 이래 동양의 문학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작품 중 어떤 작품을 우언으로 볼 것인가 하는 우언의 개념 정의문제는 연구의 대상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우언문학연구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과제이다. 중국의 우언문학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 陳蒲清은 그의 역저 『中國寓言文學史』에서 寓言은 故事의 줄거리가 있고 비유의 寄託이 있는 작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중국 고대 우언은 비유체인 故事와 본체인 寓意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sup>8)</sup>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우언의 개념정의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정확성이다. 그는 琴恪의 「주유천하기」를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증원천하를 두루 유람한 여행기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은 천상세계의 편력을

8) 陳蒲清, 오수형 옮김,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14~20쪽.

결들여 허구적 이야기를 꾸미고 작가의 의사를 가탁하고 있는 우의적 작품 = 우언(allegory)이라고 하여,<sup>9)</sup> 우언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확성의 시도는 기왕에 논자가 검토한 바 있는 임제의 「수성지」나 「서옥기」, 「화사」와 함께 고소설 가운데 이런 유형을 묶어 우언소설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유형화하려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이다. 그러나 정확성의 경우는 우언의 속성을 날카롭게 간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언을 독립된 문학양식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고소설의 우언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언을 하나의 양식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는 유종국, 이종목, 윤주필, 양승민, 윤승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유종국은 기존의 우언과 알레고리를 동일시하는 연구경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언을 언어지향성, 구성방식, 기능의 차이에 따라 寓話, 諭話, 訓話로 구분하였다.<sup>10)</sup> 그러나 그의 논의는 우언을 새로운 양식으로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인정되나 우언의 내적 구성방식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1954

이종목은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우언의 양식적 특질을 규명하여, 성현의 우언작품이 허구적으로 설정된 서사단락과 작중인물의 입을 통해 주제가 표출되는 논술단락이 대등하게 유지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양식적 특징이 후대 논자들이 우회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거나 세태를 풍자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부휴자담론』의 우언적 서술양식을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언’ 양식 일반의 문학적 특질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우언이 모두 서사단락과 논술단락이 대등하지도 않으며 우언에는 서사단락뿐만 아니라 교술단락도 많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윤주필은 최

9) 정확성, 「우언 패러디 여행기 형식에 의한 고소설 - 주유천하기론-」, 『인하어문연구』 창간호, 인하대 국문과, 1994, 43쪽.

10) 유종국, 「우언의 양식」, 『국어문학』 26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6.

11) 이종목,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205~206쪽.

근 동아시아우언연구팀을 꾸려가면서 우언문학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언의 개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우언은 엉뚱한 이야기를 본뜨는 모방의 원리, 돌려서 말하는 대비의 원리, 꾸며서 말하는 가상의 원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리가 어울리고 겹쳐져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층위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결국 우언은 의론과 서사의 복합갈래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sup>12)</sup> 이렇게 우언을 글쓰기 원리로 설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우의적인 이야기 형식인 단형우언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중국과 달리, 독립된 우언작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언적 경향의 산문과 운문을 아울러 포섭해야하는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우언의 원리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우언의 원리를 너무 이론적으로 구축하려다 보니 개념이 추상화 되어 실제 작품에 적용하려 할 경우, 어느 것이 우언작품이고 어느 것이 해당되지 않는지가 불분명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런데 비해 양승민의 경우에는 92편의 단형의 우언만을 양식적 범주에 놓고 그 서술원리를 규명하여, 우언의 양식적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논리적 문답의 방식’과 ‘인과적 형상화 방식’이라는 두 가지 서술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언이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소설과 같은 여타 문학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단형서사체라는 양식적 특징과 권계와 풍자성이라는 언어지향성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러한 양승민의 논의는 우언의 본령인 단형서사의 서술방식은 구체적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해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우언사를 생각하며 우언의 대상을 확장하려고 할 경우, 단형서사에 적용되는 논자의 이러한 서술방식을 어떻게 변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동물과 식물우언 자료를 많이 발굴한 바 있는 윤승준은 『우언의 재미

12) 윤주필, 「우언 글쓰기의 이론과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및 윤주필, 『틈새의 미학』, 집문당, 2003, 11~15쪽 참조.

13) 양승민, 「우언의 서술방식과 소통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1996, 특히 3장 참조.



와 교훈』에서 기존의 우언개념 논의를 종합하여 우언을 “우의를 기탁하는 간접적 우회적 이야기 방식 또는 그러한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된 작품”<sup>14)</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언의 특징으로 1) 우언에서는 이야기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야기에 의해 산출되는 ‘寓意(이야기의 숨겨진 의미)’에 초점이 맞춰지며, 2) 우언은 인간현실에 대한 도덕적 교훈이나 계시, 사회적 풍자나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며, 3) 소재면에서 우언은 귀신이나 신선을 비롯한 비현실적인 존재를 다루며, 동식물이나 무생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4) 이야기 속의 기탁된 우의를 전달하는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윤승준의 논의는 근래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우언의 일반적 특징을 적절히 해명하고 있어 대체로 수긍이 간다. 다만 우언의 개념을 간접적 우회적 이야기 방식 또는 그러한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된 작품으로 정의한 것은 혼란의 여지가 있어 좀더 분명한 관점이 요청된다 하겠다.

#### 4) 우언에 대한 사상적 연구 54

일반적으로 우언문학은 꾸며낸 이야기에 의지하여 인간의 잘못과 사회의 모순을 일깨우는 계몽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동식물을 등장시켜 인물을 전형화 함으로써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조롱하거나 옛날이야기나 허구를 통하여 인간세상을 풍자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동화 속의 우화/우언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창작 우언의 경우도 대부분 이런 ‘삶의 지혜’를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우언작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언양식 고유의 보편적 지향성과 함께 작자가 처한 당대 현실의 정황과 더욱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양승민은 ‘당대 현실의 삶의 정황’이라는 말로 지칭한 바 있다.<sup>16)</sup> 예컨대 이광정의 창작우언집 『망양록』의 경우 지나친 욕심과 오만, 허영

14) 윤승준, 『우언의 재미와 교훈』, 월인, 2000, 18쪽.

15) 윤승준, 위의 책, 20~22쪽.

16) 양승민, 「우언의 서술방식과 소통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1996. 79쪽.

에 대한 경계와 함께 피폐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한 인재등용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언의 함의를 해명하려 할 때 우언문학 고유의 보편적 지향과 함께 '삶의 정황'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언의 이념적 지향을 해명하려는 논문으로 우선 주목되는 것이 양승민의 장흔의 우언작품 4편에 대한 분석이다. 장흔의 우언 「大樹」는 모든 사람이 큰 나무 밑으로 모여드는 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고착적인 신분질서를 비판하고 있고, 「小魚」은 연못에 방생되었다가 나중에 용문에서 노닐게 된 뱀어 형상을 통하여 폐쇄된 신분질서의 통로를 벗어나 자유를 구가하려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老馬」는 발굽에 있는 결점 때문에 오히려 마음대로 살아간 말을 통해 소외받던 중인들의 삶을 위안하는 작품이며, 「兒狗」에서는 개가 비록 대단한 동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천부적 장점이 있음을 말함으로써 사람도 누구나 신분의 귀천이 없이 재능과 소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김영도 근래에 노장사상과 우언에 관심을 갖고 현금 자본주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와 생태학적 위기를 치유할 사상적 단초를 한국과 중국의 우언에서 찾으려 하였다. 어부지리지 우언과 강유선의 「주봉설」, 이광정의 「쥐와 고양이」같은 우언을 통해서 安分自足的 도리와 절제의 미덕을 찾아내고, 장유의 「무극자의 솜씨」와 유몽인의 「호랑이 함정」 그리고 이광정의 「어리석은 지렁이」를 통해서 생명 존중하고 무위자연의 삶의 자세를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김 영, 「한중우언의 욕망구현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1집, 2003.

김 영, 「장자와 노파지오락」, 제62차 한국고소설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김 영, 「노장의 생태사상과 우언」, 『한국한문학연구』 33집, 2004.

김 영, 「비움의 철학과 우언」, 『한국고전문학연구』 26집, 2004.

17) 양승민, 위의 논문, 81~87쪽.

## 5) 비교문학적 연구

우언적 글쓰기가 『莊子』에서 비롯되어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의 고대우언사를 집필한 바 있는 진포청은 근래에는 한국의 우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두 편의 논문과 한 권의 저서를 내놓았다.

陳蒲淸, 「論韓國古代寓言及其與中國寓言的關係」, 『국제중국학연구』 2, 한국중국학회, 1999.12.

陳蒲淸 · 權錫煥, 「韓愈 毛穎傳과 韓國의 假傳」, 『국제중국학연구』 4, 한국중국학회, 2001.12.

陳蒲淸 · 權錫煥, 「韓國古代寓言史」, 中國 · 岳麓書社, 2004.

위의 논문은 우리나라 우언문학을 산문우화, 시체우화, 가전체우언, 우언소설로 나누고 그것이 중국우언과 중국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예컨대 삼국시대의 거북과 토끼 이야기는 중국에서 한역된 불경 『六度集經』에 나오는 자라와 원숭이 이야기와 비슷하며, 설총의 화왕계는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유가적 親賢遠佞의 관념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과론적 입장에 선 진포청은 한국의 증문학자 권석환과 함께 한유의 모영전과 한국의 假傳의 관계를 다룬다. 그리하여 중국전기우언의 비조격인 모영전이 고려가전의 형성과 조선조 가전체소설에 준 서사문학적 영향을 밝히려 하였다. 이 두 분은 최근에 『한국고대우언사』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한유의 모영전이 우리나라 문인들의 필수학습서인 『古文眞寶』에 실려 있어 그것을 배운 문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 자기 취향에 맞춰 새로운 假傳 작품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실만을 추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학양식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새롭게

개변한 작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사실이다. 진포칭의 연구는 한국우언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런 우려가 적지만, 앞으로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간의 우언문학을 비교하려는 학문적 작업은 중문학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언연구자 윤승준, 김영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일방적인 영향수수관계를 확인해내려는 입장이 아니라 그 문학적 영향의 함께 우리나라 문인들의 가전이란 문학양식에 대한 주체적 수용과 창의적 변용을 주목하거나, 두 나라 우언을 나란히 견주어 보는 平行研究의 시각에서 공통적 특성을 밝히려 하였다.

윤승준, 「한·중 우언의 비교(1)」, 『국문학논집』 16집, 단국대, 1999.

윤승준, 「돈황 속부 연자부와 조선후기 송사형 우화소설 -한·중 우언의 비교적 관점에서-」, 『고소설연구』 1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0.

윤승준, 「한중우언의 비교」,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윤승준, 「중국우언의 수용과 재창조」, 2004년 한국고전문학회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인하대, 2004.

김 영, 「장자와 노파지오락」, 제62차 한국고소설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김 영, 「한중우언의 욕망구현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1집, 2003.

## 6) 동아시아 우언연구자간의 학술교류

사실 우언은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공통문화유산이므로 우언문학에 대한 연구는 각국의 우언연구자들에 의한 독립적 연구와 함께 공동의 협력연구도 절실히 요청되었다. 중국은 우언문학유산도 풍부하고 우언연구

자와 현역우언작가도 500여명을 상회할 정도가 되어 우언문학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고 연구의 중요성과 현재적 관심도 다대하다. 그런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해하는 단계이고 우언연구자도 10명을 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도 우언을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설정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중 일 세 나라 연구자 사이의 학문적 교류를 통한 지적 자극과 협력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그 동안 개별 연구자 차원의 자료 교환과 만남은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는 동아시아우언문학연구의 지평을 넓힌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동아시아우언문학연구자 간의 첫 번째 학술회의는 2003년 1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북경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우언문학연구회 회장인 仇春霖, 부회장 朱靖華를 비롯하여 陳蒲清, 馬達, 李先漢, 朴忠綠 등과 북경대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윤주필, 김 영, 이강엽, 강영순, 간호운, 양승민, 김 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통역은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에 박사과정에 유학을 온 남연이 담당하였다.<sup>18)</sup> 이 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윤주필, 「우언글쓰기의 언어관과 명실론」
- 이 령, 「공안파와 연암학파의 문학사상 비교연구」
- 편무진, 「일본의 우언론」
- 김성룡, 「알레고리와 우언」
- 이강엽, 「열하일기의 우언글쓰기」
- 강영순, 「야담의 우언적 소통 고찰을 위한 시론」
- 김 영, 「한중우언 비교의 일고찰」
- 陳蒲清, 「중국우언연구의 현황」
- 양승민, 「우언문학의 자료적 범주에 대한 문제」

18) 이 국제학술회의에 관한 상세한 보고는 윤주필, 「동아시아우언 북경대학 학술회의기」,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집문당, 2004, 267~298쪽 참조.

간호윤, 「어초류계열 우언의 문화론적 우의」

2차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는 2004년 1월 24일 일본 경도부립대학에서 한국우언문학회와 경도부립대학 문학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였다. 중국의 우언연구자들과 교류를 한데 이어 일본의 우언연구자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藤原英城, 「하이카이에서의 우언론」

飯倉洋一, 「근대소설에서 창작방법으로서의 우언론」

로버트 캠벨, 「우의소설과 명치유신」

김 영, 「노장의 생태사상과 우언」

윤주필, 「동아시아 고소설의 우언활용의 비교고찰」

진재교, 「다산 정약용의 우언시와 그 성격」

양승민, 「한문문명권 소설사에서 본 한국우언소설의 위상」

강영순, 「동아시아 야서혼 설화의 우언적 전통」

조상우, 「애국계몽기 우언문학 속의 일본과 일본인식」

이와 같이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중국 및 일본의 우언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한 것을 바탕으로, 2004년 5월에는 한국의 인하대학교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 우언연구자 2분씩을 초청해 3차 우언문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한중일 세 나라의 우언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동아시아 우언문학의 성격’이라는 공동주제를 가지고 학문적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던 학술회의였다. 발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陳蒲淸, 「우언의 문화지위」

儲佩成, 「중국 신시기의 우언문학」

- 김 영, 「비움의 철학과 우언」  
 윤주필, 「동아세아 고소설의 우언활용의 비교고찰」  
 藤原英城, 「談林俳諧寓言論의 재검토」  
 飯倉洋一, 「일본 근대소설과 우언」  
 조현설, 「지혜-신화와 우언을 잇는 고리」  
 윤승준, 「중국우언의 수용과 재창조」

### 3. 우언문학연구의 향후 과제와 전망

우언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타 장르에 비해 늦은 편이고 연구자의 수도 많지 않으나 최근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윤주필을 중심으로 한 우언연구자들이 동아시아우언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성과를 집문당에서 우언문학 총서로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언문학연구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묻혀져 있는 우언작품을 발굴해내고 이를 번역 소개하는 우언자료 정리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학연구는 우선 연구 대상작품이 먼저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화왕계」를 비롯한 이미 알려져 있는 작품의 가치해명과 함께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집의 잡록이나 만록, 기, 설, 변, 른, 록 등의 산문 갈래와 시작품 가운데서 우언 작품을 선별해 내어야 하고, 구전 설화와 야담, 골계전류 같은 데서도 우언적 성격을 띤 작품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뒤 이 우언작품들의 주석과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한국우언전집과 각 주제별로 분류한 우언선집 등을 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언관련 자료의 발굴과 번역 정리 작업은 한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각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시대나 작가, 갈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차근차근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언문

학회 내에 문헌정리기획팀이 구성될 필요가 있고, 연구초기 단계에 있는 현재의 연구자로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번거롭지만 기초적인 문헌 정리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발굴된 우언작품의 문학적 가치 해명과 인접 갈래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정리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우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왔지만, ‘우언문학’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어떻게 하면 한국 우언의 실상을 잘 설명해낼 수 있고 한국우언문학사를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 범위와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처럼 단형서사 위주의 寓意와 寓意體라는 잣대를 가지고 한국우언을 정리할 경우는 그 대상이 너무 적게 한정될 가능성이 있고, 우의적인 글쓰기를 보인 모든 장르의 문학유산으로까지 확대할 경우는 우언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래와 글쓰기 방식 그리고 우언의 구성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 규정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대내적 연구 작업과 함께 최근 들어 구축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우언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례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그 간의 각국의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연구 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에서 우언연구자를 양성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접장르 연구자를 견인해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우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문학자나 알레고리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문학자들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열린 우언문학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간호윤, 「어초류계열 우언의 문화론적 우의」,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 강영순, 「야담의 우언적 소통을 위한 시론」,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 강영순, 「동아시아 야서혼 설화의 우언적 소통」, 『우언문학제2차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일본 경도부립대학, 2004.
- 고정욱, 「금수회의록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6.
- 권석환, 『선진우언 연구』, 성균관대 박사, 1992.
- 권석환, 「한중우언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 『중어중문학』 2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12.
- 권석환, 「시론한중우언문학연구사」, 『중어중문학』 31,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12.
- 권영호, 『장끼전 작품군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5.
- 김광순, 『수성지·천군본기』, 형설출판사, 1982.
- 김광순, 『천군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6.
- 김광순,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김성룡, 「알레고리와 우언」,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 김 영, 『망양록연구』, 집문당, 2003.
- 김 영, 『네티즌과 함께 가는 우언산책』, 한울, 2003.
- 김 영, 「한중우언의 욕망구현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1집, 2003.
- 김 영, 「장자와 노파지오라」, 『제62차 한국고소설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김 영, 「노장의 생태사상과 우언」, 『한국한문학연구』 33집, 2004.
- 김 영, 「비움의 철학과 우언」, 『2004년 한국고전문학회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인태대, 2004.
- 김 영, 『한국의 우언』, 현암사, 2004.
- 김재환, 『우화소설의 세계』, 박이정, 1999.
- 김재환,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1994.
- 김진영·김현주, 『토끼전』, 박이정, 1998.
-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상)(하), 태학사, 1997.

-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개문사, 1985.
-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연구」, 『국어국문학』 65·66합집, 1974.
-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태학사, 1995.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3.
- 손병국, 「조선조 우화소설연구」, 『동악어문논집』 16, 동국대, 1982.
- 안병설, 「우언의 문학적 수용에 대하여」, 『논문집』 12집, 국민대, 1977.
- 안병설, 「선진우언의 특질」, 『어문학』 3집,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1984.
- 안병설, 『중국 우언전기 연구』, 국민대학교 출판부, 1988.
- 안창수, 「개화기 동물우언소설의 변화 양상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9.
- 양승민, 「우언의 서술방식과 소통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양승민, 「고려조 의론체 산문의 우언적 성향과 의미」,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 양승민, 「애국계몽기 우언의 존재 양상과 그 역사적 의의」, 『우리문학연구』 13집, 우리문학회, 2000.
- 양승민, 「한문문명권 소설사에서 본 한국 우언소설의 위상」, 『우언문학제2차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일본 경도부립대학, 2004.
- 오수형, 『유종원 산문 연구』, 서울대 박사, 1992.
- 유영대선주, 『조선후기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 유종국, 「우언의 양식」, 『국어문학』 26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6.
- 유종국, 『우리네 우화』, 꼬마나라, 2000.
- 윤승준, 『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 윤승준, 「한·중 우언의 비교(1)」, 『국문학논집』 16집, 단국대, 1999.
- 윤승준, 『우언의 재미와 교훈』, 월인, 2000.
- 윤승준, 「돈황 속부 연자부와 조선후기 송사형 우화소설 -한·중 우언의 비교적 관점에서-」, 『고소설연구』 1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0.
- 윤승준, 「한중우언의 비교」,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 윤승준, 「한국의 화해류 우언에 대한 일고찰」, 『제16회 동아시아고대학회 발표논문집』,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윤승준, 「중국우언의 수용과 재창조」, 『2004년 한국고전문학회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인하대, 2004.
- 윤주필, 「우언의 전통과 조선전기 몽유기」, 『민족문화』 16집, 민족문화추진회, 1993.

- 윤주필, 「신자료 ‘매류쟁춘’류 우언의 원전비평 연구」, 『단국어문논집』 창간호, 단국어문연구회, 1995.
- 윤주필, 「‘매류쟁춘’류 우언의 양식적 특징」, 『민족문화』 18집, 민족문화추진회, 1995.
- 윤주필, 「방외인문학의 전통(2) -한문고전을 통해 본 방외·방외인 우언의 연원」, 『연민학지』 4집, 1996.
- 윤주필, 「조선조 우언소설의 반문명성 -「의산문답」의 허구적 장치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12집, 1998.
- 윤주필, 「도가담론의 반모방성과 우언소설의 근대의식」, 『국문학과 도교』, 한국고전문학회, 1998.
- 윤주필, 「우언소설의 양식사적 검토」, 『고전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윤주필, 「우언 글쓰기의 이론과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 윤주필, 「한국 우언문학에서 여성적 주체의 변위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집, 월인, 2001.
- 윤주필, 「베트남 성종유초의 우언문학적 성격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3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윤주필, 「우언글쓰기의 언어관과 명실론」,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 윤주필, 『틈새의 미학』, 집문당, 2003.
- 윤주필, 「동아시아 고소설의 우언활용의 비교고찰」, 『우언문학제2차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일본 경도부립대학, 2004.
- 윤주필, 「한문문명권의 우언론 비교연구」,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집문당, 2004.
- 윤해옥, 『조선시대 우언 우화소설 연구』, 박이정, 1997.
- 이가원 위음, 『조선호랑이이야기』, 학민사, 1993.
- 이강엽, 「토의문학의 전통과 우리소설」, 태학사, 1997.
- 이강엽, 「관내정사의 교직기법과 호질」, 『한국한문학연구』 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 이강엽, 「열하일기의 우언글쓰기」,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북경대학, 2003.
- 이강옥,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서술방식과 세계관」,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0.

- 이은숙, 『항일 우의 신작구소설 연구』, 정문연 박사논문, 1994.
- 이정탁, 『한국우화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2.
- 이종복,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이종복 역,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
- 장시광, 「서옥기의 창작방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12집, 동양고전학회, 1999.
- 전용오, 「금수회의록연구」, 『연세어문학』 16, 연세대구문학과, 1983.
- 정규훈,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8.
- 정확성, 「우화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2.
- 정확성, 「몽유담의 우의적 전통과 개화기 몽유록」, 『관악어문연구』 3집, 서울대 국문과, 1978.
- 정확성, 『임백호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 정확성, 「우언 패러디 여행기 형식에 의한 고소설」, 『인하어문연구』 창간호, 1994.
- 조동일, 「토끼전의 구조와 풍자」, 『계명논총』 8, 계명대, 1972.
- 조상우, 「안숙의 비유자문답연구」, 『고전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연구」, 다운샘, 2002.
- 조상우, 「애국계몽기 우언문학 속의 일본과 일본인식」, 『우언문학제2차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일본 경도부립대학, 2004.
- 조현설, 「지혜-신화와 우언을 잇는 고리」, 『2004년 한국고전문학회 우언문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인하대, 2004.
- 진재교, 「다산 정약용의 우언시와 그 성격」, 『우언문학제2차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일본 경도부립대학, 2004.
- 陳蒲淸, 오수형 옮김,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 陳蒲淸, 「論韓國古代寓言及其與中國寓言的關係」, 『국제중국학연구』 2, 한국중국학회, 1999.12.
- 陳蒲淸 · 권석환, 「한유모영전과 한국의 가전」, 『국제중국학연구』 4, 한국중국학회, 2001.12.
- 陳蒲淸, 「우언의 문화지위」,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12.
- 陳蒲淸 · 權錫煥, 「한국고대우언사」, 중국; 岳麓書社, 2004.
- 황재균, 「조선후기 의인체소설의 근대적 지향 -장끼전과 서동지전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3.